東亞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十二面

蘇聯艦艇의砲擊을 日滿軍應戰 一隻擊沈

乾岔子島에 蘇艦三隻進入

滿洲外交部嚴重抗議

【新京三十日發同盟至急報】 關東軍發表 今三十日午後三時 乾岔子島南側水道에 蘇聯邦艦艇三隻이 侵入하야와서 不法히도 警戒中의 日滿軍에 射擊을 加하엿으므로 日本軍은 不得已이에 應戰하야 그 一隻을 擊沈하고 一隻에는 多大한 損傷을 주고 他一隻은 遁走하고 말엇다 日本及滿洲國政府에서는 蘇聯에 對하야 嚴重한 抗議를 提出하엿다

【新京三十日發同盟至急報】 外交部에서는 三十日午後三時 乾岔子島南側水道에 蘇聯艦隊三隻이 侵入하야와서 該地警戒中의 日滿軍에 對하야 不法射擊을 하엿다는 이報에 接하자 곧 外交部北滿特派員에 訓令을 發하야 在哈蘇聯總領事代理 [illegible]氏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發하며 同時에 今後絶對로 蘇聯艦隊이 侵入하지못하도록 하는것과 및 事態를 擴大시키지안토록 하기爲하야 必要한 一切의 處置를 取하도록 至急手配 할것을 嚴重抗議하엿다

顧問官에外相說明

【東京電話同盟】 三十日 樞密院本會議散會後 廣田外相, 杉山陸相, 米內海相은 [illegible] 顧問官全部가 남어잇어 廣田外相으로부터 滿洲國에서의 治外法權撤廢方針과 및 이에 關한 [illegible] 詳細히 說明하엿다

滿蘇國境의危機

蘇、軍艦撤收에同意

兩島의領有는固執

今後紛糾를未免形勢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蘇聯의處置監視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旣定路의封鎖强化

蘇、劃定交涉에伏線

滿蘇水路의紛爭經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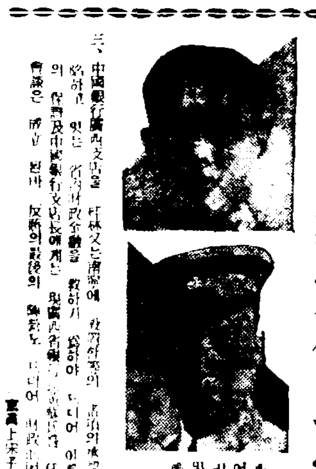
[illegible]

大祓節折의御儀

卅日宮中에서御擧行

【東京電話同盟】 天皇陛下께옵서는 大祓의 三十日古式의 節折의 御儀를 行하옵시어 親히 御祓하옵시고 [illegible] 御安泰와 國家의 隆昌을 御祈念하옵시엇다 [illegible]

蔣氏의最後陣營



財政的困窮으로 廣西全然中央化

李宗仁氏、宋氏에게陳情

【廣東二十九日發同盟】 [illegible]

兩交戰團體承認?

西國問題와英佛兩國

【倫敦二十九日發同盟】 [illegible]

人民戰線派에叛亂勃發

【西班牙二十九日發同盟】 [illegible]

蘇聯總選擧規則制定

【莫斯科三十日發同盟】 [illegible]

佛新財政法案

下院大激論後可決

【巴里二十九日發同盟】 [illegible]

民政黨役員補充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企劃課所管事件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總督府異動

二日閣議에서決定하야發令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辭令

[illegible]

本紙價改正에際하야

數年來 一般物價가 昂騰의 一路를 밟어왓다는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말을 드리지안흘지라도 여러분이 日常生活에 體驗하야 잘 아실것입니다。[illegible]

東亞一短評

[illegible]

本紙定價改正

最近 新聞用紙와 其他 諸原料가 顯著히 騰貴하엿으므로 할수없이 七月一日부터 本紙 定價를 左와 如히 改正하옵나이다。

其實 減頁도 생각해보앗사오나 內外多端且複雜한 此際에 報道陣을 縮少하는것은 讀者諸彦의 平素 期待하시는바에 報答하는 所以가 못될것을 알고 그 대신 價格을 改正하기로 하엿사오니 저이 苦衷의 잇는바를 諒察하시와 倍前 愛護하시기를 바라옵니다。

一個月 金壹圓貳拾錢

昭和十二年七月一日

朝鮮日報社
東亞日報社

無敵艦隊
吉田御殿
團成社

祝續刊

高敞郡興德面興德里 道議員 陳萬秀

高敞面邑內里 高敞高普理事 姜大湜

星松面三台 大山金融組合長 鄭東煥

星松面三台 鄭泰煥

海里面 三養社海里干坧部職員一同

星內面事務所職員一同

星松面事務所職員一同

大山金融組合理事 鄭琪煥

高敞面事務所職員一同
古水面事務所職員一同
雅山面事務所職員一同
興德面事務所職員一同
大山面事務所職員一同
孔音面事務所職員一同
海里面事務所職員一同
上下面事務所職員一同
富安面事務所職員一同

全北高敞邑內 高敞郡守 金五燮

全北高敞邑內 高敞警察署

財團法人 高敞高等普通學校

高敞高普學務理事 洪鍾轍

名氏

三養社高敞事務主任 金圭亨

金正會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高敞代理店 鈴木保治

丁永植

鄭鳳鎭
同 鄭斗鎭

ClibPDF - www.fastio.com

北長老, 教育事業에서引退

儆新도經營中止

昨日, 미숀會總會에서 票決

信聖은 스테이숀會에 委托

【平壤支局電話】 누보=조선예수교 북장로파 선교회(미숀) 총회 제八일은 三十일 오후 一시 一시휴회후 다시 평양에 재개하야 경성 경신학교(儆新學校) 경영계속여부와 선천 신성학교(信聖學校) 재단법인 제에 대하야 토의하고 결정한 신하게 영에 대하야 표결한 결과 五十대 二十一이로 경영을 중지키로 결정되었다.

▽決議內容▽

一, 儆新學校에 對하야서는 一九三九年三月부터 그 經營에서 引退키로 함

一, 이 決議를 그 學校理事會에 報告키로 함

○

신성학교는 서지와 같이 선천의 스테이숀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스테이숀회에 위탁키로 하였다.

平壤三校解決의 督促電報를 要求

【平壤支局電話】 평양 숭실, 숭의 학교와 숭인의 세 학교 문제에 대하야 이미 미슌회의 결정을 보았으나 아직까지 하생의 문제에 대하야 당국에 회답이 없으므로 속히 해결하여 달라는 요구를 전보로 발송하였다.

引繼促進에 後援會서도打電

이보다 먼저 평양 교인계 후원회에서는 三十일 미국 뉴욕 북장로 외지선교본부에 대하야 三校引繼를 촉진하여 달라고 전보하였다.

無頭의風光찾어

東海의 푸른 물결은 삼어 올릴 거인다.

이런한 어머니의 손길같이 질, 히 서온 그가 하마라라 안어주는 바다 때로는 大陸을 삼킬 듯 시ㅣ 러운 건 바위에 부딪힌다.

바다ㅅ머리 비록 깨여져 나가 가리가 부서지러 가리 모질은 바위 언짠이고 남 부림을 하여 마음대로 바위 뚜드려 준다.

―○―

×내앞에 千兵萬馬달리 오. 너라 ×나는 다시 碧海에 우뚝 솟은 바위, 사람들이 일러 金剛이거나, 남들이 불러 金剛이거나 海金剛의 맞을 반어 선 一대로 千이 나히 이 金剛이 다하도록 수만이 번이나 波濤와 싸워 이기는 一氣像.

이것이 海金剛이 오, 이나 오 아 정서요.

만물이 구르는 바위

이 바위의 歷史는 옛이야기 오, 이나 변함이 없다. 이 世界에는 어림도 가림도 없다. 오, 와, 정서요.

自然이 스며진다

이것만이 이 世界의 生活이오 歷史다

(海金剛에서 文·林 生)

區劃整理의第二年計劃

新堂、龍頭、清凉、麻浦

四區를明年에着工

大峴은 難工으로 工費每坪三四圓

總工費는四百萬圓

경성부 토목과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에 대하야 계획적으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작년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돈암정 영등포 방면의 구획정리를 실시하는데 제 일년 계획인 돈암정, 영등포의 정리를 완성한 후 제 二년 계획으로 신당정, 용두정, 청량리, 마포정리 등 四개구의 정리 계획을 세워 명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라 한다.

신당정구(新堂町區)、청량정구(淸凉町區), 마포정구(麻浦區)、용두정구(龍頭町區) 등의 정리는 약 一백만평 가량이 된다 하며 총공비 약 四백만원의 예정이라 한다.

行旅死

부내 신당정 화장장 부근에서 행려사망자가 발견되었는데 그는 행려병자로 판명되었다 한다.

新堂里五百住民이

登記抹消請求訴訟

覆審에서 係爭中인 土地를

第三者에게賣買契約

부내 신당정 화장장 부근에 인사부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제소하였던 토지 약 일만평의 지상에서 살고 있는 수백 주민 五백여 명은 그 소유권이 경성부에 있다고 하여 토지 사건의 내용인즉 경성부에서 전정 구획하야 이전하라고 강경하게 나오므로 주민들은 경기도에 인가 한 토지 매매에 대하야 관계자들은 매우 분개하여 이에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 문제는 반단되어 전기 五백 주민은 새 사건으로 一심에 소송하기로 되었다 한다.

今日부터實施되는새것

車輪이고무바퀴로

電話는度數制로

十七邑昇格、漢江엔水泳開場等

오늘부터 실시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성의 전화도수제 실시와 한강수영장의 개장 등이다.

度數制된電話

五錢받으면 規則違反

경성부내에서는 七월 一일부터 전화도수제가 시행된다. 이제 전화는 한 번 걸 때마다 五전씩 내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야 그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十七邑昇格

七월 一일부터 十七개소의 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그 지명은 다음과 같다.

▲京畿 安城 ▲忠南 江景、▲全北 井邑、▲全南 麗水、光州、▲慶北 金泉、浦項、▲慶南 晋州、統營、▲黃海 海州、▲平南 鎭南浦、▲平北 新義州、▲咸南 咸興、▲咸北 城津

漢江水泳開場

여름날 한강에 수영하는 사람들을 위하야 七월 一일부터 경성부에서 한강 인도교 부근에 수영장을 개장하였다. 한강은 수위가 높아 위험하므로 어린이들은 주의하여야 한다고.

鐵輪通行禁止

京畿에서부터 實施

도로를 보호하기 위하야 우마차, 마차 등의 철륜 통행을 금지하고 고무바퀴로 바꾸게 되었는데 七월 一일부터 경기도에서 실시된다.

東部水道取扱

경성부에서는 동부 수도 출장소(東部出張所)를 설치하고 七월 一일부터 수도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問題의學校

今後動向

평양숭실·숭의·숭인 학교의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지 아니할 모양이다.

儆新은校長談

四十년간의 역사를 가진 학교를 어떻게 감히 폐지시키겠습니까. 앞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平壤支局電話】 경신학교 문제에 대하야 ─ 설립자 측에서는 조선인 측에 인계하기로 하여 경영할 것이라 한다.

信聖校長談

신성학교는 조선인 측에서 인계하여 경영키로 되었다.

貞信、保聖만 問題에除外

【平壤支局電話】 미순회가 경영하는 학교 중 정신, 보성 두 학교는 이번 문제에서 제외되었다.

列車顚覆計劃

犯人을嚴探

龍山刑事隊猛活動

용산 경찰서에서는 지난 二十九일 오후 열차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한 범인을 엄탐 중이다.

現金窃取

평남 중화 주소부정 김

寫眞機窃取

부내 아현정 모씨 집에서 사진기를 절취한 범인을 잡아 취조 중이다.

詐欺醫師檢擧

시내 모처에서 의사라고 칭하고 사기를 하던 자를 검거하였다.

十시轢人

한강통에서 용산 방면으로 가던 자동차가 사람을 치었다.

世界의銀幕에춤출

明媚한朝鮮風光

崔承喜女史의主演

일활다마천촬영소(日活多摩川撮影所)에서는 조선무용의 권위 최승희(崔承喜)를 주연으로 하야 조선 풍광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조선의 풍광과 최승희의 무용을 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라 한다.

(사진은 최승희여사)

橫領外交員

京城에潛跡

保險金三百圓가지고

부산 대동생명보험회사 외교원이 보험금 三백원을 횡령하여 경성에 잠적한 것을 경성 종로서에서 수사 중이다.

오늘의 天氣

흐리겠습니다

男性的快技!

今日、아마拳鬪戰開幕

조선 아마추어 권투 선수권대회는 금일 오후 七시부터 경성 부민관에서 개막된다.

◇빤담級

1 趙基植(普成) 2 金正煥(京拳) 3 李根永(東洋) 4 申昌石(普成) 5 文壽慶(普成) 6 朴龍鎭(東洋) 7 金海鳳(普成) 8 徐觀錫(東洋) 9 金東根(安義) 10 金泳奎(水原) 11 李相九(京拳) 12 朴相奎(普成) 13 元一龍(東洋) 14 金鳳善(普成) 15 朴敏錫(普成) 16 金文攴(東洋)

◇페더級

1 韓啓洪(東洋) 2 朴殷鉉(普成)

◇플라이級

1 沈享熙(平壤) 2 閔 植(普成) 3 金仁燮(京拳) 4 鄭福鎭(東洋) 5 李應萬(普成) 6 朴應植(東洋) 7 李南九(普成) 8 鄭元福(普成) 9 李鳳成(京拳) 10 李慶福(東洋) 11 金聖龍(平壤) 12 金昌俊(平壤) 13 尹致英(東洋) 14 鄭鎭泰(普成) 15 金永鎬(東洋) 16 朴敏石(東洋) 17 金四順(普成) 18 劉一男(普成) 19 朴東植(東洋) 20 李昌武(普成) 21 金文煥(京拳) 22 金仁鎬(普成)

◇라이트級

1 朴榮出(京拳) 2 文茂政(光州) 3 黃錫淳(東洋) 4 鮮于顯(普成) 5 金石泉(京拳) 6 朴順泰(東洋) 7 文在環(東洋)

萬五千米競走에

金德淳君優勝

서울육상연맹 주최 제二十五회 A마라손대회 경성운동장에서 一만五천미 경주는 金德淳君이 一시간 五十一분으로 우승하였다.

一着 金德淳(京中) 51分13秒
二着 文濬澤(外語) 51分15秒
三着 鄭昌順(普一) 51分25秒
四着 李龍鎬(商工) 56分30秒
五着 李順成(徽文) 57分25秒
六着 金錫淳(京城) 57分30秒
七着 任永燮(中央)

女子庭球리-그

三日京運서續行

시내 여자중등학교 정구리그전은 二十九일에 경성운동장에서 거행하려던 것이 우천으로 인하여 중지된 것을 오는 七월 三일 오후 一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거행하게 되었다 한다.

今日의運動

▲拳鬪 全朝鮮아마추어拳鬪選手權大會第一日 午後七時半부터 京城府民館(入場料 指定席一圓、普通五十錢、學生三十錢)

社說

京城府의 普校擴充計劃

一

[illegible]

二

[illegible]

三

[illegible]

救窮事業費厖大로 財源捻出方法考慮

六年以來總經費二億千萬圓

起債問題가問題化

[illegible]

非常時伊太利의 國營專賣事業

煙草自給은거의達成

伊太利政府의 歲入總額中 專賣事業의 收入은 大部分을 占하고 [illegible]

伊國의 煙草生産高는 年額으로 [illegible] 伊國의 煙草와 百六十億本 [illegible]

實績에四億리라

[illegible]

伊太利專賣事業收入

(單位百萬리라)

	一九三六—七年度	一九三五—六年度	增減
煙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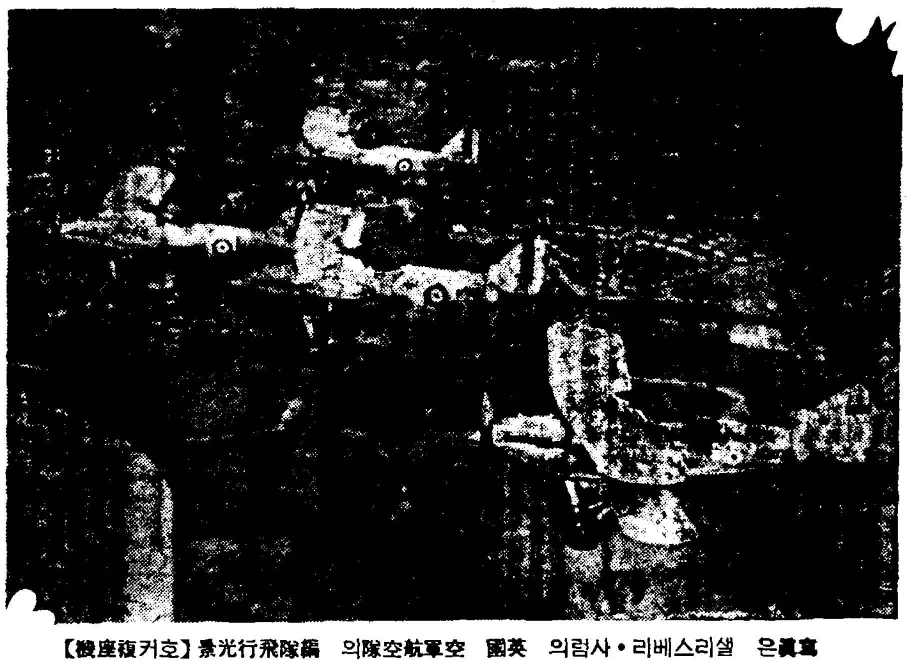
煙草의自給達成

[illegible]

伯林에서開催될 世界動力會議

八月廿一日부터一週間

第三回 世界動力會議는 오는 八月二十一日부터 二十八日까지 世界二十五國의 代表가 出席하야 伯林의 크롤·오페라·하우스에서 開催된다. [illegible]



寫眞은 샐리스베리·사람의 英國空軍航空隊의 編隊飛行光景【호커複座機】

繼續的增加하는 昨年度世界工業

獨逸景氣研究所調查 (一)

世界의 工業生産은 一九三六年에 [illegible]

世界人口及工業生産指數

(一九一三年=一〇〇)

	人口	工業生産	人當工業生産
一九一三年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一九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獨逸景氣研究所作成)

產業別槪觀

基礎原料工業

[illegible]

世界動力生産指數

[illegible]

金屬工業

[illegible]

世界金屬生産指數

[illegible]

(獨逸景氣研究所作成)

其他基礎原料

[illegible]

原料生產指數

[illegible]

辭令

[illegible]

英新首相論 (二)

런던·타임스(週刊)社說

이어 [illegible]

摩擦 [illegible]

政綱 [illegible]

的中 [illegible]

理想 [illegible]

自體 [illegible]

(六月三日) (完)

中繼放送

[illegible]

光武劇場

이스라엘의 月

남자업는나루

香街

第一劇場

太平洋攻防

祝續刊

信川穀物商協會 電話五一番

信川郡廳 電話七番

信川水利組合 電話五五番

安允車部 金文亮 電話一二六番

信川運送合名會社 電話一〇番

韓國產精米所

大成貿易社

李寬雨商店 電話一一五番

李鍾天

柳昌萬

三成精米所

濟衆醫院

中央醫院

海星醫院

成進社

日產精米所 電話三一番

平院材木商會

金成精米所

信川農民學校

東國商會

殖產商會

地方論壇

公園을設置하라

大田 一記者

紅塵이 萬丈하야 混濁스러운 空氣속에서 生活하는 都市人에 잇어서는 淸新한 空氣를 呼吸할수잇고 散亂한머리를 安靜시킬수잇는곳은 오즉 公園이잇을따름이다. 그러나 近西萬의 人口를 包擁하고잇는 大田으로서 더구나 南鮮唯一의 關門이오 압으로도 發展性이 富하야 繁榮過程에잇는 大田으로서 市民全體의 保健을 圖하야 安慰할 場所가 一個所도 없고서야 어찌 大田의 面目을 保持할수잇을것인가? 忠南의 代表都市인 繁榮大田으로서의 存在를 認定할수잇겟는가? 近代式化하는 華麗한 都市이오 南朝鮮으로서는 中樞都市인 大田으로서는 他都市보다도 公園이 絶對必要하다.

先進都市民의 私的生活을 顧察한다면 그들은 小規模이나마 美麗한 庭園이잇어 그로써 新鮮한空氣를 呼吸하고 明朗한氣分을 가지게되는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社會的施設을보더라도 大田만한 都市라면 數三處의 公園을 施設하야 大衆의保健을 圖하고 慰安하게 하는것이다. 아무리 一般府民의 衛生, 保健을 等閑視하지안는다면 當局은 이에 一考가없지못할것이다.

바라건대 當局者는 府民의衛生과 保健을 圖하야 하루바삐 公園을 設施하야 完全한 大田을 가지기를 切히 바라는것이다.

家內工業獎勵 工業研究所設置

〔大邱〕 경북의 가내공업(家內工業)은 근년비상히 약진하야왓슴으로 상주(尙州)대구를 중심으로 직물수공업이전성시대를 출현하고잇는바 대구부에서는 근일 공업연구소를 설치하고 장기강습과 직공양성을하야 더욱가내 공업의발전에 전력을다할 예정이라고 한다.

密酒罰金이도 四萬餘圓에達해

〔南海〕 경남하동세무서(河東稅務署)에의하면 소화九년부터 동十一년도까지 三년간에 남해(南海)지방에만 밀주벌금액이 四만五천원에 달하다하며 요사이농번기에도 밀주취체원 十여명이 출장하여 취체한결과 발견된것만 五十여건이나된다고한다.

十個年繼續事業으로 普通學校大擴充

學校는三百、學級은二千三百으로

全南道에서十三年부터施行

〔光州〕 전라남도에서는 조선인초등교육기관 확충에대한 十개년계속사업을 새로 계획하엿다는 사실=전라남도내에는 공립보통학교二백五十一개소에 八반二백四十三명의 생도를 수용하고잇다 고함은 본지에기보하엿거니와 전남도당국에서는 소화十三년도로부터 十개년계속사업으로 보통학교확충계획을 수립하엿다는데 그내용을 조사하여보건데 그계획이 완성되는 十년후에는 三백개소이며 二천三백학급이라고한다. 그러고보면 학교는 현재보다 四十九개교가 증설될것이며 학급은 一천七十七개학급이 증가된다고한다. 그러므로 一개학급에 평균 七十명을 수용한다고보드래도 十六만一천명에 불과하다는바 학령아동은 현재의 三十一만六十五명의 一할五부증가를 본다고 하며 십일 四十八만九十七명의 다수이라고한다. 그러므로 十개년계획이 완성되는날에는 취학아동은 학령아동의 三할五부에 불과하다고함으로 十개년계획이라는 그간완전히 보잘것이없는 상태라고한다

慶田 全南學務課長談

조선인 초등교육확충 十개년계속사업문제에 대하야 경전(慶田)학무과장은 왕방한기자에게 「이번에 수립한 十개년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전라남도아동수를 표준으로세운계획이아니나 현재 보통학교입학지원자수를 표준으로 하야 이와 지원자가만할 十년후에는 전부수용하자는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인보통의 입학열이 더욱더왕성하야 시면 十개년계속사업을 七、八년으로 단축하야 시행할수도잇는것이며 그러치아니하면 十二、三년으로 연장할수도 잇는것입니다」라고 말하엿다.

寺刹林經營指導 尊嚴風致爲主

慶北道山林課의 積極策

〔大邱〕 사찰림(寺刹林)의 경영에대하야 종래는 적지아니 방임하야 확실한 방책을 세우지 안흔 관계로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유지상 부가되는바가 만흠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다음과같은 지도방침을세우고 금후에 잇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하리라 고한다.

一、임야면적의 대소에 불구하고 사찰의 존엄과 풍치유지상 필요한 구역은 이것을 시업제한지(施業制限地)가되는 보통시업(普通施業)에 의게할것

二、전화의 구역을제외한 임야의 상당한 면적에 달하는것은 경제림(經濟林)으로하야 적당한 시업요강을 세우고 시업방침을 확정할것

三、채벌은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일시에 넓은면적에 확한채벌을 하지말것

四、사찰재정이 용납하는한 방화선의설치 또는전임순시원을 두고 보호수단의개선을 도모할것

五、당지주민의 입산에 대하야는 지역제한과 기한등을정하고 혹은 입산증을 교부하야 입산료를징수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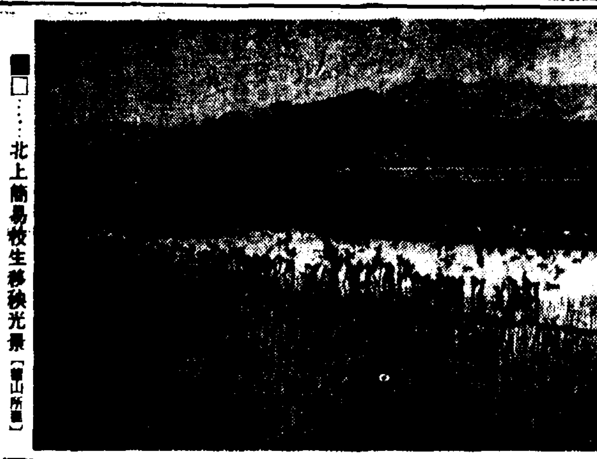
一般이企待든 電燈料金引下해

〔高敞〕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관내인 전북고창군내(全北高敞郡內)一반사용자측에서는 전등요금 감하실현을 갈망중이든바 동회사측에서도 사용제씨의 요구에 순응주의로 지난 一월중에 체신국에 요금인하 허가신청을 제출하고 六월부터 실현을 세리하든바 당국허가 되제로 七월중부터실현될것이라는데 인하정도는 현요금에 一할정도라한다.

小作調定에對한 措置命令發動

調定願千五百件突破

〔光州〕 전라남도농무과에 제출된 소작조정원은 지난 二十九일 현재로 一천五백九十七건의 다수라는데 조정에 대하야 지주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는 동시에 조치명령(措置命令)을 내리려든다는바 이명령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서는 소작인이 그전과같이 그토지를 경작하드래도 지주가 하등의 이의를할수 없는것이라 한다. 조정당국에서는 금월부터 이조치명령을 적용하게 되엿다고 한다.



■□……北上簡易校生移秧光景〔釜山所見〕

極貧者救濟로 釜山方面委員活動

〔釜山〕 부산부내 수만빈곤자의 구제의 기관인 부산부방면위원회(方面委員會)는 설립이래 五개년의 세월이 지나갓는데 그간 불상한 사람들의 구제는 그수가 부지기수엿다. 지난 二十八일 오후一시十분 부산공회당에서 제五회 방면위원총회를 개최하엿는데 시내전위원 백四명이 전부출석하야 성황을 연출하엿다. 고교(高橋)부윤장계주임의 개회인사와 전인수(全仁洙)위원의 [illegible]

「甘雨! 一滴千金」 가랑비만오락가락

大邱 二十五일부터 나리는비는 二十八일까지 나리어 무내기와 각종농작물에 흡족한 우량을 보이어 농촌은 벌써부터 풍년을 노래하고잇다. 경북도내의 二十五일부터 오늘까지 우량은 다음과 같다.

▲大邱十三미리六▲慶州二十一미리▲浦項十六미리五▲永川十六미리▲金泉十三미리▲知禮十三미리九▲軍威六미리▲高靈十三미리三▲星州十五미리五▲漆谷九미리▲安東十八미리▲靑松二미리 [illegible]

參禮 전북완주군삼례지방(完州郡參禮地方)에도 지난二十九일오전七시반부터 부실부실 내리는 비가 동十一시반까지 계속하엿으나 전부 흡족하게는 못하야 농민의 마음만 더 초민하게되엿다하며 삼례들은 익옥수리조합(益沃水利組合)관개구가 팔풍하는 관계로 적당한시기에 이앙을하엿으나 계속되는 가물로 발미안해 도열병(稻熱病)이 발생되어 전면상태에 빠젓다고한다.

軍威 경북군위(軍威郡)일대(一帶)에는 단이념도록 비가 흡족히나리지안허서 이앙기(移秧期)가 늦어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앙된것이 겨우 四할六부에 불과하다. 그리하야 이앙한것조차 마르는상태이므로 일반농촌에서는 강우(降雨)를 고대하야 초조함을 마지안는 형편이다. 지난二十六일 이른아침부터 종일오후까지 세우(細雨)만 오락가락하다가 그것조차 그처지고 무심한 구름(雲)만이 창공을 덥흘뿐으로 농민들의 우수(憂愁)는 자못깁어지는현상이라한다. 二、三일내로 비가 너무오지아니하면 아주 이앙되지못한것은 물론 이미이앙된것까지도 말라죽으리라 한다.

報恩 보은지방(報恩地方)에는 지난二十六일 아침부터 거리는비가 내리기시작하야 농가에서 기대하엿다. 그러나 비는 흡족치안고 날이개어 아즉三할의 이앙(移秧)을 못하게 되엿다한다. 그러므로 농가에서는 一층비관에싸여 한울을우러러 비가 더 내리기를 고대하고잇다 고한다.

馬山 기보한바와 같이 지난二十五일밤 비가 온뒤로 아직 비올기척이 보이지 안코 구름만 오락가락 할뿐인데 이앙은 四할내지五할에 불과하다 하며 연일 사정없이 쪼이는 햇빛에 이미 심은 모도 가물음을 타서 비비 비꼬여가는양은 보기에도 안타깝다. 작년 천재에 놀란 농민들은 조바심하기 마지 안는 모양이라한다.

江華 문자그대로의 一적천금의 희우가 강화(江華)에 나린다. 근四十일출청으로 심지어 음료수까지 부족를 보아 일반농가에서는 무정한 하늘만 치어다보고 탄식만거듭하든중 지난二十九일새벽부터 강화전역에는 본격적으로 감우가 나리고잇어 농가의 우려가 해소됨은 물론 인심이완화되리라는데 현재 八할의 이앙을보고잇는바 한발이 심하든곳은 하점면(河岾面)、부내면으로서 그외이앙만 된다하면 금년은 호조적풍작을 예상하게 된다고한다.

大田 대전(大田)일대에는 금二十八일에는 협종수까지지는 수리의 종작으로 별여없이 이앙을 하엿으나 그후 일절 비가 오지아니하야 먼저 심은것은 뿍이말러감침나게도 세우만 오락가락하며 로 일반농민의 기대는 컷엇으나 하늘을 뒤덥어 비가 반히 올것으로 [illegible]

裡里 이리부근지방 一대에는 한발이 심하다 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二十六일부터 큰비가 올듯가뜻하야 가고 남어지 이할가량의 경지는 [illegible] 심하게 하드니 약四、五일전부터 비가 내릴듯 하야겨우몬지가개일만치만 옴으로 일반농가에서는 일층초조중에 잇다고 한다.

金浦 가물이 심하여 모두를 느끼고 잇다고 한다. 하늘만 처다보며 구름한쪽만 떠올라도 비가올것같이 애를 태우고잇든 김포지방에도 二十七일에는 감자이 거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비가 반히 올것으로 일반농민의 기대는 컷엇으나 감질나게도 세우만 오락가락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안는 형편이라는데 위선 전곡만을 해갈된것 같고 앞으로도 비는 더오길 하다고 한다.

高敞 전북고창군(高敞郡)의 이앙 사황은 수순이래 저수답을 비롯하야 우리를가하여 지난二十七일현재 약 七할五부가량 심엇는데 지난 二十六일부터 거듭되는구름한 오락가락하고 잇어 가끔 세우를 시작한것이 二十七일까지 겨우 五미리에불과하고 일기는 개여 바람으로 소서(小暑)가 임박한 요새에 一반민심은 극도로 변화하야 감질내는 기후에 단망하고 일부에서는 서종을 착수하엿다한다.

五百萬圓豫算으로 大長項築港實施

충남서부 일대의 처녀항으로

今日長項서起工式擧行

〔大田〕 충남유일의 항구인 장항(長項)의 수축과 매축공사의 기공식은 오는三十日에 거행하리라는데 수축공사는 三개년계속으로 총공비 一백六十五만원이오 매축공사는 三백二十만원의경비로써 제一기는 五개년、제二기는十개년으로하야 전후 十八개년간에 준공하리라는것이다. 그를 지리적으로본다면 충남의오지에 처하여잇으나 산업적으로 충북(忠北)、경북(慶北)과도의 직접관계를 가지고 경기(京畿)、강원(江原)과의 관계가 하이잇는곳이며 압으로 원주(原州)와 제천(堤川)까지의 철도연장도 실현될터이므로 이번의기공식은 충남서부일대의 역사를전환하다싶이하는 감이잇어 도민전체가 [illegible]하야 성황한가운데에서 식을거행하리라한다.

[illegible] 의 제八회 전국방면위원대회 출석상황의 보고가잇엇는데 당일에 협의한 사항은 다음과같다.

一、釜山府方面委員聯合會[illegible]의 件

一、[illegible]

一、巡回診療大會의件

一、方面事業內容大會의件

一、[illegible]大會의件

一、方面委員과 社會教化團體와 [illegible]

一、防貧的施設에對한 [illegible]

一、方面委員指導教養의件

一、登錄者에對한 [illegible]

一、[illegible]

新設道路問題 馬山府民이陳情

〔馬山〕 신설도로착공기를 앞두고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동민들이 마산부당국에 진정 또 진정! 이란 이중주진정극(二重奏陳情劇)이 일어낫다. 사실은 마산부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七월중순경에 착공할 신설도로는 오동동(午東洞)부 윤구삼(尹九三)씨소유지의 한중간을 통관(通貫)하기로 결정이되어 오는 七월중순에는 착공할것이라는데 전기 윤구삼씨소유지의 북편(北便)에사는 하성오(河聖五)씨외三十여명은 동지점의 북단(北端)으로 도로를 신설하여달라는 탄원서(嘆願書)와 진정서(陳情書)를 부당국에 제출하야 수차 교섭을 하고잇는데 동지점의 남부에사는 박이서(朴履瑞)외三十여명의 세궁민(細窮民)들은 도로가 신설되면 세궁민들의 집이 헐리므로 갈곳이없으니 도로신설을 반대한다는 뜻의 진정을 지난 十三일 부당국에 제출하야 二중주진정극(二重奏陳情劇)이 일어낫는데 부당국은 양편의 진정을 모다 一척(一擲)하고 기정방침대로 착공할것이라 한다.

木浦解賃引上問題 米穀商側、減下要求

삼할인상에、이할인하를 주장

運輸協會、引上撤回

〔木浦〕 기보=목포운수협회(木浦運輸協會)에서 목포미곡이출상조합(木浦米穀移出商組合)에 대하야 종선임(從船賃)三할을 인상하여달라는 요구에 목포미곡이출상조합에서는 무리한 요구라하야 일축하고 쌍방이 강경한 태도로써 대항한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지난 二十六일 오후一시 미곡이출상조합은 대책을 강구하기위하야 목취회의실(木取會議室)에서 부입(賦入)문제에 대한 정식회의를 개최하고 파반 운수협회에서 봉고한 제경비내용을 조사한결과 현재부입 十二원九十전은 운수협회에 상당한 수입을 보고 잇다는 것으로 三할인상요구에 반하야 도리어 미곡이출상조합은 운수협회에 대하야 三할을 인하(引下)할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이출상조합과 운수협회측과 회담한결과 결국 三할인상 요구를 철회(撤回)하기로 하엿다한다.

韓面長의美擧 極貧者戶稅代納

〔槐山〕 충북괴산군소수면(槐山郡沼壽面)면장 한성구(韓聖具)씨는 자기도넉넉지못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흉작의 재로 인하야 호세조차 납부할수없는 극빈자에게 일전에도 종쌀(種米)二十포대를 구입하야 분배구제한일이 잇엇다는데 지난二十九일에는 면내극빈자 一백十六호에 가옥세호별세 二백여원을 대납하엿음으로 일반인사들은 씨의후의를 감사하야 마지안는다고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養鷄의大受難 六百首가死亡

慶南道當局豫防에努力

〔釜山〕 「닭」의 대수난시대! 최근 경남지방에 만연되어가는 닭의 전염병 가금(家禽)콜레라는 부산 동래(東萊) 양지방에서 치명하야 벌서 사망이 六백수 병들어잇는 것이 一천二백수로서 부산동래지방의 양계가 백호에 七、八만수의 가금이 잇다는데 경남도위생과에서는 지난二十九일 가금의 예방을 실시하야 각경찰에 통첩을 발송하야 병계와 건계(健鷄)를 격리케하고 [illegible]

馬山刑務所에서 强盜被告自殺

豫審中井戶에投身해

〔馬山〕 지난 十九일 오전十一시경 마산형무소구치감에 수용되어잇든 강도피의자 한명이 운동시간을 이용하야 깊이 二十여척의 우물속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이 생기엇다는데 그는 원적을 함안군대산면하기리(咸安郡代山面下基里)에둔 전호수(全浩洙)(二〇)로 지난달二十四일 [illegible]면 평리(坪里)에 사는 최석봉(崔石奉)이란 이의 소 판돈 五十원을 빼아서가지고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엇는바 二十五일에 드디어 체포되어 엄중한 취조를 마치고 곧 마산검사국으로 송국되어 이래 예심중에 잇든바 그와같이 교묘히 담당간수의 눈을 피하여 자살한것이라고 한다.

變心한愛妻를 亂刺致傷

男便은警察에서取調中

〔大田〕 전북 이리읍본정(裡里邑本町)二정목에거주하는 김상룡(金相龍)(二七)은 지금부터 약八년전에 이오이(李五伊)(假名)라는여자와 결혼하야 살아가는중 어떠한일인지 옥희는 타락한 사람의보금자리를 만들어 년부터 전기남편을 싫어하는기세 이보이드니 지난三월에 무단출가하야 부여군(扶餘郡)[illegible]의 모부호의애첩으로 드러가서 산다는말을들은 김은 지난二十八일오후八시경에 옛날의행복을 누리자고 누누히 간청하엿으나 옥희는 냉정히거절함으로 [illegible]

安東第二普校 位置問題로陳情

〔安東〕 기보 안동제이공립보통학교(安東第二公立普通學校)의 위치문제로 최근 수개월내로 동기성회(期成會)측의 중앙의 현헌한 활동에 의하야 그지원부담금(地元負擔金)二만八백원의 일시적 차용도 그간 관계당국과 원만히 교섭성립되어 남어지의 문제는 오직 계획인가수속과 학교위치 선정문제인데 전일부터 누누히 말썽되어 오든 전기위치문제에 대하여는 목하 동기성회측과 읍민 일반이 모두 천문묘(文廟)부지를 갈망하야 [illegible]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및 안동군당국에서는 전기부지는 분묘소재지이므로 아동교육상 불가하다는 사곳 애매한 이유를 붙여서 가급적 서부지대(西部地帶)인 안동농림학교부근으로 [illegible]

月餘의旱魃로 田畓枯渴狀態

槐山地方에또旱魃騷動

〔槐山〕 괴산지방은 작년에도 한발이심하야 한발소동을 일으켯섯는데 금년에도 五월답에비가와서 약七할가량이 이앙되엿으나 농번기에들어 오랫동안 한발이계속되어 아직도 심어지못한 논도 만흔 점시기가 늦어가며 모를낸 논까지 도고사경에 잇는상태에 빠져잇으므로 一반농가에서는 매년이장래를 우려하야 하늘만치어다보고잇다한다.

景陽池를埋築 光州住宅地로變更

주택지 협착을 완화할대책으로

廿萬圓豫算으로不遠起工

〔光州〕 광주부내에서는 연년히 인구가격증하야 주택지가대단히 협착함을 느끼게됨으로 부당국에서는 그를 완화키위하야 경양(景陽)방죽을 매축하야 一대주택지를 신설하려는 방침을세우고 계획중이라한다. 동공사는 一개년계속사업으로서 二十四만二천一백五十원의 경비를 요한다는바 방죽의총면적은 六만五천四백十八평중에서 一만六천三백二평은 감하아서 방죽으로하고 남어지 四만七천四백六十五평을 매축하야 주택지대로한다한다.

비는每日오나 田畓枯渴狀態

〔楊口〕 양구(楊口)부군一대의 이앙(移秧)은 매우순조로되어 약九할이상 모를내엇으나 一개월이나 나려오이는 한발로 인하야 논은 전부말러서 균렬(龜裂)이되고 전답은 전부 고갈상태에 빠지어 一주일내에 비가오지안흐면 전답곡물은 전멸상태에 빠지게되리라는데 비는 날마다 한두방울씩 오나 아니오나만도 못하고 一반농가로서는 대단히 장래를 우려중이라한다.

開城棄兒

〔開城〕 지난二十七일 오후十시경 개성부남산정(開城府南山町)三七五번지 최명근(崔明根)의 유리점 대문안에다 누구인지 생후四개월된 게집아이를 검은 모사치마에다 싸서 갓다버리고 갓는데 발육은 조흐나 입어논 의복을 보면 생활난으로 전기와같이 내다버린것이라고 한다.

納付證보고도 酒稅를再徵收해

〔固城〕 경남고성군고현면대사리(固城郡古縣面大寺里) 김정진(金正鎭)씨와 이근업(李根業)씨는 소화十一년도분 주세를 정납하기 위하야 면서기 도마리(都馬里)에 [illegible] 송치거이(送致)를 하엿는데 [illegible] 하동세무서(河東稅務署)에서 주세를 [illegible] 납부하엿음에도 불구하고 [illegible]

蚊帳에引火로 三家族死傷

大田春日町의慘事

〔大田〕 부내 춘일정(春日町)三정목六七번지에 거주하는 이덕순(李德淳)(?)은 八十의 할머니와 아래로 어린동생 세식구가 살어오든바 지난 二十八일밤에도 역시 할머니품에 안겨 헤어진 모기장속에서 잠을자든중 원체 빈대가 만흐므로 할머니되는 한씨(韓氏)는 석유등불을 켜들고 빈대를 잡다가 그만 모기장에 불이 붙어 미처 손을 쓸사이도 없이 세식구가 한꺼번에 화상을 입엇다는데 동리사람들이 이를알고 겨우 구출하여 부근 덕제의원(德濟醫院)에 다리고가 응급수당을 가하엿으나 마침내 동생되는 순봉(順鳳)(五)이는 무참히도 죽고 남어지 두사람도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大邱有志發起로 商工會社를創立

〔大邱〕 대구의 유지 윤상태(尹相泰)、서창규(徐昌圭)씨등의 중심으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주택난 완화를 위한 건축과 재료판매를 영업종목으로 한 경북상공주식회사(慶北商工株式會社)를 발기하야 창립중이던바 二十八일 창립총회를 여러 아래와같이 역원을 선거하야 오는 七월부터 정식개업을 하리라는데 동사는 개업전부터 사업에착수하야 약三만원수의의 업적을내엿다고한다.

▲社長尹相泰▲專務徐昌圭▲常[illegible]

[illegible] 는 무서운 병이라 一방 양계가는 주의할일이라고 한다.

仁川鼻疽病豫防

〔仁川〕 인천서(仁川署)위생계 [illegible] 당지서위생계 [illegible] 계포되엇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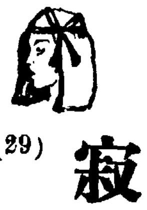
既設自作農家 千百三十餘戶

全南道農村의一面相

〔光州〕 전라남도에서는 소화十二년도에도 예년과같이 二백五十호의 자작농을 창정하려고 十대만五천원예산으로 방금 조사와 준비를 거듭하는중이라는데 자작농창정을 시작한지 五개년간에 벌서 一천一백三十四호를 창정하엿다는데 성적이 매우 양호하야 각농가의 중심농가가 되어잇는 현상이라고 한다.

釋王寺旱魃로 移秧不能이殆半

釋王寺 그간 [illegible] 지방에도 十여일간 [illegible] 이앙을못하니 [illegible] 지난 二十六일 오후부터 [illegible] 시작부터 나리기시작하든니 二十八일 아침에까지도 비는 [illegible] 어 일반농가에서는 기뻐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寂滅 (29)

金武吉 作 洪得順 畫

盛世(十二)

다음날 저녁도 인애는역시 순복의집에 돈벌기를 가노라고 어머님을 속엿다. 그리고 울림의 탑골공원으로 옴기엇다.

탑골공원은 인애의 집근처인만큼 자조방장을 놀너오든곳이다. 그는 옛날 박철과 앉어서 밤가는줄도모르고 이야기에 즐기든 통의쪽 하안벤취를 다시찾아 유심히보앗다. 그러나 그곳에는 춘식이가 벌서와서앉어 기다리고잇엇다. 이것은 물론 인애가 애기한일이지만 인애의가슴은 벌떡엿다.

「어제는 미안햇읍니다. 허허……너머취해서…」

「……」

「오늘주신 편지는 감사히 받엇읍니다.」

「……」

인애는 속이떨리는의에 아모말도 나가지안엇다. 남자를 앞에 의젓히 패부를 찌르는정당엇다. 그러나 춘식은 인애가 수집어서 저러거니…하고 이해햇다.

「공원이 라고 된 데라도…

자—저리로 나갑시다. 자동차를타고 다른데로 놀너가게요 허허……」

춘식은 싱긋벙긋하며 심히나서 손짜목을 내저으면서 떠버렷다. 인애는 말없이 그의뒤를 따라 갓다. 공원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수상스러운 눈자위로써 힐끔힐끔 그들의 행색을 훑터보앗다. 파연 문밖에서는 춘식의 자가용자동차가 악마의 입같이 문을버리고 기다렷다. 그것은 바로 수일전에 순옥이탓든 자동차엿다.

인애는 그층햇든 차속에 순옥이를 대신해서 자기가 타게 되엇다는것을 운명의 비극으로 아니할수가 없엇다.

춘식은 자기의 운전하는 솜씨를 보여줄양으로 볼을 잡고나서 「루레의」를 제동하는일이며 「크락취」를 밟엇다가 「하이」로 옮기가는 동작을 곡예사(曲藝師)같이 능난하게하엿다.

「어차가 얼만지 아시요?」

우선 춘식은 비싼자동차를 주고산 자랑을햇다.

「저—게가는 누루끔한차는 모양은 이차와 비슷하지만 「신포—드」라는 데이마 삼천오백원이면 살수잇고 여게 지나가는차는 「나쉬」보래—저 고놈은 「비크」요 놈은 「닷도산」이란 일본서만든 차……」

춘식은 못지안는말을 흘자하면서 종로바닥에 오고가는차들의 일일히 평가하엿다. 그러나 인애

「저희의 지산에 몇입이나 갈롱?」

인애는 어런게주머수한 생각에 떠올랏다.

「그들쯤은 하는돈으로 사회사업을 햇으면 얼마나 [illegible] 가 되지안흘가?」

그러움에는 어런정도 [illegible] 다.

그러나 마차지기를 [illegible] 가는 협구차를 탄 [illegible] 지에잇는 인애로서는 모른 [illegible] 모른 비와 [illegible] 려고 [illegible] 갈려엇다.

차는 조선호텔앞으로 기뻐 드러갓다. 인애는 이곳이 처음인 만큼 어리둥절하엿다. 그러나 춘식은 어곳들이 익숙한것이어 [illegible] 그를 안내하엿다. 피은 웅장하게는 군데군데 대를 예쁘게서 가죽소파와 기구의 자가 진열되엇다.

어곳저곳에서는 서양인남녀가 평다웁게 즐거히 앉어서 흥겨우려 을올리고잇다. 인애는 자기의 뒷 과 비조함에 더할수없엇다.

「오—미스송이여—오래간만이오. 하우 두유두?」

미국부인와 한사람이 인애의장을 지나다가 어러케 외치엿다. 그것은 옛어서사글 인애의 선생님인 미스순희이엿다. 그는 반가히 인애를 자랑엇다.

「어—선생님. 안녕하셧세요?」

「네…. 참 반갑소. 학교에 못어서 섭섭해요.」

「………」

선생은 인애가 남자와、더군다나 [illegible] 앉엇다.

「흠—빈털엇나? 좋종방말해야……」

「네네. 어쩐에 잇습니다. 쉬어가시지요?」

춘식은 [illegible] 표현하여서 대답햇다.

「네네. 없엇습니다. 준비하게읍니다」

보이는 춘식이가 청하는 [illegible] 더도넷다. 그리고 오늘은 [illegible] 길대를 기쁘하는듯이 웃음을 기재못하여 실득실득하면서 여 종으로 올나갓다.

[illegible] 「바스넨」 [illegible] 「쎄러저—노돌」을 [illegible] 「다이오린—소리」가 은근하고 처량하게 흘러왓다. 인애는 [illegible] 리가 자기의 [illegible]

사실 인애는 사랑대로 [illegible]

그들의 [illegible] 게 [illegible] 하겟다.

ClibPDF - www.fastio.com

地方論壇

穀物協會에 一言함

咸興 一記者

우리 咸興市는 農業物資集合地로 咸鏡道에서 屈指되는 新興都市인바 十數年前부터 穀物商組合을 組織하고 [illegible]

처음 組合을 設立할當時에는 五、六名에 不過하든 商人이 組織하엿든바 日日隆盛하는 衆野市라 얼마되지 아니하야 二十餘名의 中小商人이 加入되엿다. 그리하야 組合을 解散하고 穀物協會로 再組織한後에는 一層 一般事業의 革新運動이 進步된 것이다. [illegible]

逐年發展途上에잇는 咸南道家內工業

昨年度生産額一千五百萬圓

【咸興】 약진함남의 가내공업 발전상을 말하여주는 증산표! 작년一년간 六千四百五十七호에서 생산된 가내공산액은 실로 一천五백五十만 一천七백八十六원의 거액에 달하야 재작년의 그것에 비하면 호수로는 五만五千원 감소이나 산액으로는 百九十七萬 六千八百十六원의 증가를 뵈어주고잇다. [illegible]

結婚을反對한다고 親父를亂刺致死

龍岡에稀世의悖倫子

【龍岡】 자기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자기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게한 제二의 오천일사건이 용강군지운면에서 발생되엿다. [illegible]

各地에黃金雨

天水畓엔解渴에不過

永興 장기의 한발로 [illegible]

沙里院 [illegible]

方峴 [illegible]

嶺美 [illegible]

新上 [illegible]

安東縣 [illegible]

新幕 [illegible]

三日間降雨로

一千百萬圓增收豫想

黃海道農務課調査

【海州】 황해도(黃海道) 내는 [illegible]

元山五大釀造所를 大資閥이買收統制

매년萬餘石生産量 [illegible]

二千養豚業者大打擊

【元山】 [illegible]

要港元山에서 防空演習

【元山】 오는 七월 十一일 [illegible]

順寧駐在所員 道路改良에發憤

【永興】 [illegible]

請求物品不納하면 區長等即時銃殺

【釜山鎭】 [illegible]

關北個人庭球 李、徐組優勝

【吉州】 길주체육회 주최인 제五회 관북개인정구대회는 [illegible]

(사진은 우승팀의 우승기 수여와 결승의광경)

竹川留置場脫走犯 翠野에서逮捕

【翠野】 [illegible]

世上을悲觀코 十八歲女投井自殺

【豐山】 지난 二十四일 오후 四 [illegible]

"이런색시삿어주면 五十圓謝禮"

【江西】 지난 二十四일 [illegible]

男便射殺한 金順子公判

來十二日新義州法院에서

【新義州】 [illegible]

南浦娼女追借金防止策으로 收入步合改正

오늘七월一일부터施行

【鎭南浦】 [illegible]

雪上加霜으로 旱魃에傳染病까지

【豐野】 장기간동안한발이계속되어 [illegible]

苦灘의甘雨

【苦灘】 [illegible]

金蔓姬女史全財 寧邊崇德에萬圓喜捨

先夫의遺志를받어

【寧邊】 영변숭덕학교(崇德學校)는 [illegible]

金女史談

[illegible]

校理事談

[illegible]

元山電話規則改正

【元山】 [illegible]

松禾에서祈雨祭

【松禾】 [illegible]

多年間懸案中이든 遮湖體育會創立

【遮湖】 [illegible]

黃海道火災 被害額卄三萬圓

【海州】 [illegible]

東邊道開發에 三億圓投資

發展하는鴨綠江一帶

【安東縣】 [illegible]

淸津漁港蹴球戰

【淸津】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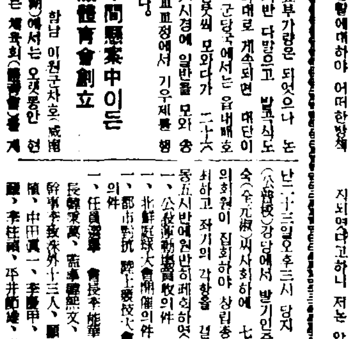
春川幼稚園移轉

【春川】 [illegible]

牛車夫打殺한 殺人强盜犯

海州港나루터에서被逮

【海州】 지난二十三일 [illegible]



模範靑年

趙炳洛君表彰

【載寧】 [illegible]

黃海道에서 運轉手試驗施行

【海州】 [illegible]

洪川麥作大豊 移秧도順調

【洪川】 [illegible]

魚群發見飛行 七月부터三個月間

【城津】 [illegible]

元山孤兒院同情名唱大會

◇日時 七月一、二兩日 [illegible]
◇場所 元山館
◇出演者 [illegible]
◇入場料 階上八十錢 階下六十錢
◇主催 元山孤兒院後援會
◇後援 東亞日報元山支局

學藝

「知性의自由」와 휴매니즘의精神
—眞實로그의名譽를위하야—
(三) 安含光

氏의 歷史觀의 大部分이 그러한것과마찬가지로 [illegible]

階級

[illegible]

招致

[illegible]

이곳

[illegible]

情勢

[illegible]

巨大

[illegible]

現實

[illegible]

兩大

[illegible]

素描

[illegible]

最後一人의聽衆

어떤博士가 [illegible]

隨筆 그·蒼·空 (上)
李善熙

—이야기A

[illegible]

—이야기B

[illegible]

漢詩
麥浪 一等
姜俊模

滄浪忽變麥田中、
萬頃天然翻海同。
浦面蒼凉如帶雨、
波心搖蕩不勝風。
籃婦荷筐疑浣女、
耘夫倚杖似漁翁。
隔水桑麻三四屋、
渺茫浮在巷西東。

「雨後」여름의表情 [其二]

叢書評論
樂觀하라
玄民

요새 朝鮮과 朝鮮文學의 前途에 對해 대단히 悲觀的인 見解를 갖는사람이 만히잇음을 느낀다. [illegible]

海外短信
人間과汽車의競爭

[illegible]

酒客은웨少食하나

[illegible]

科學
新聞寫眞이야기
新聞寫眞이란 어떤것인가 (一)
姜大奭

우리가 每日新聞紙面에 [illegible]

寫眞說明 [illegible]

新刊紹介

▲月刊野談 七月號 [illegible]

▲朝火 七月號 [illegible]

明日의鋪道 (26)
李無影 作 安夕影 畫

南國의여름밤(一)

그것은 남강상류 구암새밤후에서 생긴 일이엇다. 상훈, 영주—어려케 셋이 낙시질을 하고 잇엇다. 저녁노을이 시뻘어케 강물을 붉드려 논 석양이다.

상훈이와 한중은 나라니 안저서 낙시줄을 느리고 잇섯다. 어항속을 드러다 보듯이 상스러울만큼 큰 잉어가 꼬리를 치고 다니는것이 보엿다. 그들은 담배도 피울줄 모르고 낙시줄만 잡고 잇섯다. 황상이 일렁—하기만 해도 그들의 가슴은 서먹햇다.

영주는 낙시줄만 보아가지고는 알수가 업어서 그들의 얼골표정만 번가라 처다보고 잇섯다.

두가닥의 낙시줄이 동시에 늘청햇다. 그순간 한중과 상훈의 얼굴은 낙시줄 처럼 긴장되엇다.

「그다!」

상훈이가 외첫다. 부비셔 한중이도

「아 이것봐라!……」

하고 환희의 고함을첫다.

긴장, 환희, 불안 이러케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얼골에 나타낫다. 그들은 숨소리도 죽이고 줄을 감아드렷다. [illegible]

「아—훌륭하다!」

「만세—!」

영주도 [illegible] 소리를첫다.

그러나 예상한것은 [illegible]

「어놈아 이것이 네 잉어란말야—」

하고 상훈이가 고함을친 순간 그의 주먹은 한중의 왼쪽뺨에 [illegible]

그러다가 깻다. 새벽 다섯시엿다.

영주는 무의식적으로 머리맡의 수건을 집어서 이마의 땀을 씻엇다. [illegible]

영주는 일어나서 [illegible] 어머니도 무슨꿈을 꾸는지 상그래 웃고 잇다. 사십이나 되엇건만 어머니의 자는 얼골은 이십대의 처녀다웟다. 그는 다시 불을끄고 눈을 감앗다. 아까의 꿈길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려것이다.

「이놈아 이것이 네 잉어란말야?」

하고 상훈이가 고함을 치던 장면까지 가서 영주는 진저리를 첫다. [illegible] 상훈의 얼골이 스크린의 대사(大寫)처럼 눈앞에 나타낫다. 어둠속의 부엉이눈처럼 살기가 등등한 그눈。 그눈은 점점 확대되어 영주의 안계(眼界)를 벗어낫다.

「만일에 내가 한중씨와 약혼을 햇다면 상훈씨는 무슨일을 저즈를지도 모르는일이다.」

영주는 꿈속에서 본 상훈의 얼굴이 눈에서 살아지지 안허서 어머니가 깨기까지는 [illegible] 못하고 누엇섯다.

「어가 너 벌서 깻니?」

[illegible]

豫約募集

「春香傳」레코-드의 金字塔!!
春香傳全篇
우리의最大의古典이오、 [illegible]
吹込藝術家 丁貞烈 李花中仙 朴綠珠 林芳蔚 金素姬 (鼓)韓成俊
빅타-레코-드

各種樂器 레코-드 及蓄音器
琴喜樂器店
京城府鍾路二丁目七八
電話光化門一六三七番
振替京城一四五九番

태평레코-드
賞與金
朴英鎬詩 李龍俊曲
(八一三○一)
한만타면
人氣制覇의大家盤 七月十五日發賣
戀愛讀本 人蔘씨-커쓰 港口의스타일
盧碧花 崔南鏞

祝 蓄音器祭

京阪一
태극성광목 우리옷감

進め龍騎兵
ハリキリボーイ
優美館

보고온 이야기 (1)

伊太利는 音樂의나라 歌劇이 箇中에 最盛

聲樂家 李寅善氏談

最近 우리樂壇에는 다른곳에가서 實地로 視察하고 硏究하고 온분이 적지안타。 우리는 各方面의 專家가 그方面의 所得이 적지안흐리라고 생각하며 그이야기를 이곳에 옴기기로 한다。 勿論 이야기만으로 興味잇으려니와 樂壇各方面에도 적지안흔 啓發이 잇으리라고생각한다

仁旺山麓에 淸凉한 小家庭이다 四五歲되는 小兒가 아르님가 빙글 그리며 드나든다。 記者를 맞어주는 李寅善氏는 퍽으나 明朗하며 親近스러운 말이엇다。 샛별같은 눈은 그렇근소리와 相應하는 點이 업지안타。

記 오늘오신것은 伊太利에서 보고 들으신 이야기를 좀하여 주시란 것입니다。

李 네 네。

記 今年여름은 서울에 게시겟읍니까。

李 只今豫定으로는 그럿읍니다

記 가을에는 東京으로 가시나요

李 大阪으로 가게됏서요。 大阪朝日에서 主催하는 音樂會가 잇으니까 먼저 大阪으로 가서 그後에 京都, 神戶等地를 거처서 東京으로 갈까합니다。

記 伊太利가서는 몃해 겨섯든가요。

李 四年이엇지요。

記 伊太利에서는 主로 어느이에게 섯읍니까。

李 「미라노」에 잇엇읍니다。

記 그곳에서는 個人敎授를 받읍니까 或은 學校를 단이셋는가요

李 個人敎授를 받는것이 다른곳과 다릅니다。 더구나 聲樂은 學校를 단이면서도 個人敎授를 받는것이 普通입니다。

記 先生은 어느분에게서 敎授하셧든가요

李 알프레도•체기氏 주세페•압바레스氏 에밀니오•피콜니氏 等 세분에게서 主로 私習하엿읍니다。 에밀니오•피콜니氏는 二年前에 東京에 온나는 世界的 테너 스키-파氏의先生입니다。

李 寅 善 氏

記 伊太利에서 有名한聲樂家는 누구인가요

李 테노-레•콧제로로는 스키-파氏요 테노레•리리코로는 질니氏가잇는데 다 世界的으로 有名한테나들입니다。 제외先生中에 슈세페•압바-콧스氏는 테노레•드람마티코로 亦是名歌手입니다。

記 個人敎授를 받으면 時間은 대개 어느때가 適當합니까

李 밤이 第一좃습니다。

記 普通생각으로는 午前이 조흘것같은데요

李 아침에는 목이 잘 티입니다。 넘은 녹이 趣味없고저 (이야기는 朝鮮音樂評으로 드러갓엇다)

李 朝鮮에는 아주 音樂이 普及이되지못하야 音樂家이 如干 不自由하것이 아닙니다。 音樂家가 自己의 알지못한 部分까지 許하는것이 趣味없읍니다 다음 音樂를 알지못한사람이 音樂을 許하는것과 마치한가지로 우수운일입니다。

記 정말 그럿읍니다。 音樂에 專門家이 없이 評하는일도 잇으니까요

李 伊太利의音樂會는 어떠케 開催합니까

記 伊太利는 音樂會가 퍽으나적고 오패라를 합니다。 大槪十一月廿六日부터 四月까지스칼라조아에서 오패라를上演합니다

李 그러면 音樂會에서 하는것같이 歌劇의一節만을 하는것이아니고 歌劇全部를 上演하겟읍니다그려

李 그럿읍니다 歌劇全部를 다하는것 입니다

記 그러면 伴奏는 무엇으로 하는가요

李 오게스트라지요 大槪百餘名이 하게됩니다 그것을 듣고 앉엇노라면 精神이 상쾌하야 지지요。 (이말을 할때에는 퍽으나 그오케스트라가 그리우신것 같다。 마치 이때 뜰에서는 손이왓다 고 그런지 까치가 飛翔하야 울 고 잇다。)

記 뭇수탈合하신 「스칼라조아」라는것은 歌劇場입니까。

李 그럿읍니다。 米國의「메트로폴리탄」보다가 世界에서 有名한 歌劇場이요 그곳에서 出演하는사람들은 다 有名한 歌手들입니다。

記 그러면 그곳에서는 每日上演합니까。

李 一週間에 五日間은 하게됩니다。

記 音樂會의 伴奏는 오게스트라로하는가요 亦是피아노로 합니까。

李 오게스트라로 하기도하고 피아노만으로도 합니다。

記 先生은 요지음도 練習을하십니까。

李 每日합니다。

記 伴奏는 夫人이 하십니까。

李 아니요 練習할때는 伴奏없이도 練習합니다。 (이때에 가끔 피아노를 치는소리가 걸의방에서 난다)

記 伊太利가실때에는 世專을 卒業하고 가셧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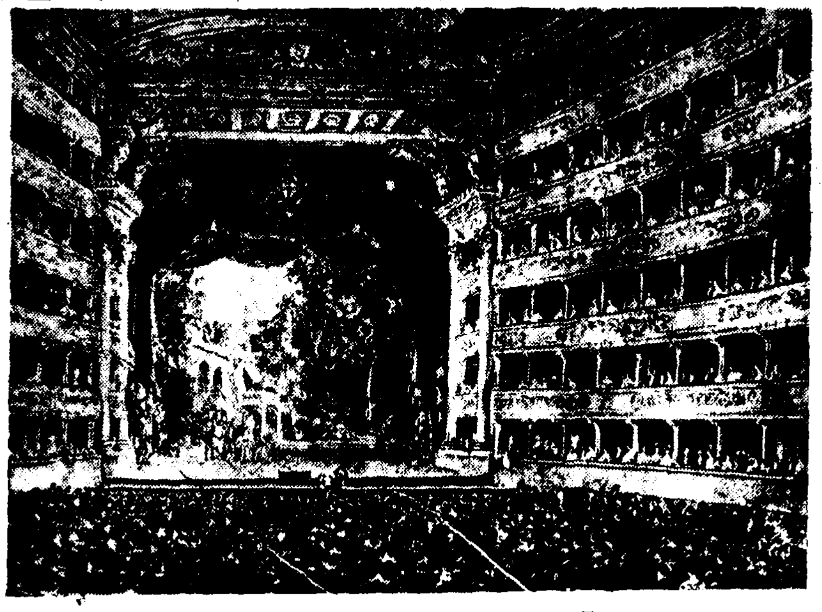
李 卒業하고 東京에서 三年이나 開業하다가 갓엇니다 그리고 伊太利에서도 國立大學에서 또 研究하엿지요 獨唱이 무척 趣味없는것도 아닙니다。

記 伊太利 氣候는 어떳읍니까

李 조치요 로-마以北은 겨울에는 좀 寒氣가 반코 안개가 끼여서 곁에슨사람도 보지못할때가 잇읍니다 그러나 南方은 딴판으로 明朗하지요 北方에서는 겨울에 스키-를타면 南方에서는 골프를 하게됩니다 北方도 여름 가을은 좋읍니다。

記 新聞에 보니까 小林千代子가 歌劇의 콤비를 李先生에게 請하엿다고하는데 事實입니까

李 아직 아무런消息도 없읍니다 (그동안에 伊太利名勝에 關한 寫眞도 만히보고 仔細한說明도 만히 들엇으나 一一히 다記錄할수없어 割愛한다。)



寫眞은 스칼라조바歌劇場의內部 觀客席이 六層으로되여잇으며 世界一의 大歌劇場이다

(演)(藝)(消)(息)

▲劇藝術研究會의 花形으로서 人氣높다가 不幸히 病으로 昨年가을以來舞臺에서지 못하고잇든 申鉉... 氏는 그동안靜養에 힘쓴 效力이 잇어 저간完全히 回復하엿음으로 今般다시 舞臺에서게되엇다 申氏의回復後 最近出演作品은 七月一日부터 東洋劇場에서上演되는 靑春座의 "彷徨하는人生들" 林仙圭作 이다。

▲PCR의 岡讓二氏夫人으로 역시 同社의 스타인 櫻町子氏는 來七月卅一日 橫濱出帆의 大洋丸으로 渡米하야 約半年쯤 헐리우드를 비롯하야 米國各地를 見學하야 映畫와 音樂舞踊等의 研究를하고 도라오기로 되엇다。

▲科學者 "파스투르"의 生涯를 映畫하야 佛蘭西映畫에 "에포크"를 지은 "디발-레" 監督은 今般 다시 "科學者의긴"에 出演한 名優 "올•무다"를 主演으로하야 佛蘭西文豪 "에밀졸라"의 傳記映畫를 製作하게 되엇는데 이에는 自然主義를 提唱한作家 "졸라"가 아니라 例의 "드레퓨-스" 事件이 일어낫을때에 社會正義를 絶叫하야 이러선 "졸라"를 主體로 한것으로서 現下 歐洲大戰直前과 恰似한때 인만큼 反戰的色彩가 濃厚함이 映畫는 示唆하는바 만흘것으로 期待된다。

米國은「다리」도世界第一

寫眞은 最近에 完成한 世界一의長橋金門橋下를 떠여나가는것이 米國軍의자랑거리인「世界一」艦隊이다。 이것이야말로 양키-의 三寶를 기두릴것없이 世界의 一大壯觀이엿것이다。

紐育美人『모델』 情痴三重殺人事件

로니의素行이問題 (三)

남아잇는 유일한 증거품인 회색엔-트의 장갑을 담뭇에서는 다시없는 담서로녀기고 숨어잇는사실을 폭로하기위하야 잇는지혜를다내여서 벌엇하도 빨리 시민에게 알분의 귀찬을 벼허주고 잇다。

경찰화의 준엄한심문에 화가난 빼로니카의부친은 말하였다。「로니-는 미련혼하엿지만은 나뿐애는 아니엇다。 우리부부가 벌거한지도 발서四五년이나 된다。 그원인은 노니-와그애어미가 나의말을 조금도 듯지안코 로니-는 우리들의 하는말도 듯지안하엿다。 나는 혼자들리는것이 실혀서 벌거하게 되엇다。 로니-가 피살되엿다고해서 그애에대한 나의태도는 조금도변치안는다。 그애는 아메리카녀자의 나뿐것만을 전부모아노흔것가튼녀자다。 그애는 친구가 잇엇든모양이나 전부가 나와일치도못한 사람뿐이엇다。」 로니-의 언니 에셀、(남편과 부친과가티 브릭의 시체를 발견한사람)

로니-와 생전에 친하엿든 녀자친구

는 모도다 이상한친구의 의견을 크러 부정하엿다。 지—누카—부리하는 로니-와어하피시며 부터 친하친구는 다름파같이 말하엿다。

「로니-는 남자까지 안치만은 결코 바람나는 아니엿읍니다。 아메리카에의 특유한 방탕성과 감한이지의소유자여서 남자친구는 만하엿지만은 그것은그저 친구에 불과하엿고 한사람도 그 이상의 교섭은 업엇읍니다(이최후의말은 자기말대로 로니-와의 혼하엿다고생각한 하우자•볼실 망하게하엿으리라) 로니-는

남자친구에게서 돈이나 값비싼선물

을 밧지안는 처자가 잇는 남자와 깊은교제를 하지안는다고 항시말하엿읍니다。 그것만보드래도 그 여자가 건실한것을 알수잇을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동안교제를 하엿읍으로 무숨일이나 서로통정하엿으니까 로니-를 죽이기까지 그를 원망하사람은 그밖은친구중에 한사람도 없을것입니다。」

로니 의언니 에셀도 또 아래와같이 말하엿다。

「로니-는 조흔의미로나 나뿐의미로나 대표적아메리카 여이엇읍니다。 그러므로 부친의 구식요로파적사상과 맞을리가 없읍니다。 로니-도 그것을 충분히알고 항시 이러케 말하엿읍니다 ……나는 아메리카 사람인데요 그러케 부친이 말한대로만 하고 잇을수가 잇어야지요。 나는

젊은때에 재미잇는 생각을

하여두지 안호면언제 할수가잇어요……하여간에 부친은끝까지 로니-를 사람으로 여기지 안코 그의 장점을 발견하려고도하지안하엿으며 현대여성의 기질에 조금도 이해가 없어서 로니-에게는 몽정이 가지안하엿엇읍니다。 로니-는 화려운 생활을 하고 잇엇지마는 절코 탈선한 일은 없고 언제나 목서하고 잇엇읍니다」 이와같이 말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것같이 머리를 숙이엇다。 에셀은 十八세때 한번결혼하엿엇고 지금 남편은 두번째이다。

로니-자신도 十六세때 한번결혼

한일이 잇엇다。 그것은 그가 겨우 여학교 삼학년때엿고 상대자는 로바-트•플라와-라고하는 十九세소년으로서 쌍방이 다 미성년이엇다。 결혼한후 인자성인이 되엇다고 생각한 그는 지금까지 부친에게 눌려잇든 향락주의를 일시에 발산시히여서 밤마다 딴쓰비엔화에 베하고 친호흡을 모르고 나단엿엇다。 아주 十九세밖에안된 미성년의 안해를 가진 로바-트•플라와-는 엇지할수가없엇다。 그와 같이 밤마다 나다니려면 입을옷은 요하고 잘논은 틈게 된다。 제일은 무를하고 잇는 그로서는

밤마다늦게까지 도라다니고는

그이튼날일에 지장이 잇엇다。 끝끝내 그는자기양친과 로니의 양친에게 상의한후 이혼을 하엿 엇다。

그후에도 두사람은 친구로서 교제하여 왓엇다。 로니-자신은 로바-트•플라와-와 두어번이상 나맞나지못하엿으나 부친의 조세프는 실내유희를 편으나 잘기 여서 로바-트와 취미가 일치하므로 항시 맞나게되엿엇다。 로니-의 조혼은 철없는것이라고는 말할수없다。 경관이 물주한 고망할수는잇으나 음분한 녀자라 고는 말할수없다。 일기와 다른것으로 보면 그친구는 五十인이나 되엿엇다。 이사람 들을 일일이 불러내서 조사하 기는 용이한 일이 안니엿다。 다른시에 잇는 사람은 그곳경찰 에 의뢰하기로하엿다。 그여자의 일상생활도 세밀히 다 조사하 엿다。 그러나 그여자를 원망한 사람은 한사람도 발견할수가없엇 다。 경찰도 어찌 할수가없엇다。

寫眞은 被殺者

投書函

流行歌의淨化

所謂流行歌라하고 巷間에불러지는 노래를 듯건대 어찌 그다지도 歌詞가 野卑하고 曲調가 哀傷的인것이만흔가? 世日界天의 哀愁的 요는찻이부수도없고「沒落의 哀調」만 이 充滿하엿스니 듯는이의 가슴에 찬바람이 부는것도 아니다。 반쓰러나 노래를 부르는이가 大部分이 靑少年인데도 不知不識之間에 沒落的 悲哀曲을 즐겨하야 頹廢的 氣分이 조금도 利益없는 그中心靈에 깊이 陷해난다。 藝術의 衰頹와 人類文化의 破滅은 오히려도 두지안코 作曲家와 作詞家와 레코-드會社의 營利에만 눈어두어 이러한 作品을 濫製하는 것이 바라고 무엇이랴? (慶南蔚山 文藝生)

地方巡業劇團諸君들이여

당신네들은 藝術家이니 俳優이니하는 看板을가지고 地方公演時에 出演하는 당신네들보면은 조금도 眞實性이없고 舞臺上에서는 俳優들이아니라 마치 小兒가하고노는 것파같다。 演劇에 從事하여서는 조금도 생각이없고 劇場에서 演劇이 閉하면 간다는곳이 카-페•酒店으로 일을삼으니 그것이 表面에나타난다 某劇團指揮하고다니는 團長은 賭博場을 일삼으니 그밑에 活動하는者는 무엇이 바로되겟는가 생각할일 俳優가 아니라 노릇이라고하여도 싸다고 할뿐이다。

그는 金錢의 욕심으로 눈이어두어서。 地方巡回하는 劇團諸氏들이여 좀 참다운 藝術과 藝術家 살릴마음이잇기를 바라고 또는 낫분習慣을 버리고 至誠으로 活動하여주기를 바란다。 (慶春筱)

나그내을보고나의求願 (金堤 徐鍾煥)

잠잠한 停車場에 ... 나그내로 떠나는 男便을 싣고 汽陳江을 건너가는 적은배안에 번민과 고통에 울고 그의 가슴에 의男便을 바라보는 主婦의 哀傷한 노를 저울때마다 그의가슴은 엇더하리요。 祈運에 祈運이 거듭하는 主婦의 運命 한숨에 고통이 잇으며 한숨에 辛이 잇스리라 作者여 主題로하야 彼岸을 하야 주옵시를 바라나이다 나는 너를 보고 감격에 박혀도붙을지 엇소 【光州 崔秉子】

우리文學을사랑하자

讀書家諸氏여! 더욱이 小說을 愛讀하는 그대들이여!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된 新聞雜誌들이 얼마나 읽히는가 그대들이여 그들은 이小說의 愉을 신이길이상이지 안흐려는가? 前日나는某氏한테서 이런말을 들엇다。 그것은 朝鮮小說은 보구 십지안코 봐도무엇인지 알수업다 고……아— 이얼마나 寒心한일 이나 勿論이런사람이 朝鮮內에적 지아니할것이다。 먼저 우리는 우 리것을 안다음에、 남의것을 알必 要가 잇지아니한가? 제것도몰으 는게 남의것을 알여고하는것은좀 어리석은 일이라아니할수 없다。 그대들이여! 하로라도 바삐、우 리文學을 사랑하고 그것을熱愛하 는同時에 이땅의藝術이 世界에빛 나기를 祝하시다 (惠山李鳳載)

演劇講興者에게一言

요지음 우리朝鮮에 演劇水準이 점점높아가는것은 自他가다 認定하는바이라아니할수없다。 그것은 우리朝鮮에서 活動하고잇는 演劇人諸氏에게커다란힘이다。 우리演劇界는 더욱이 新人과같은 演劇靑年을 將來를 받치어야하는者로서 는 大端히 幸福이라하야도 過言은아니다。 先生님이시여 先生님 도 잘아시는바와같이 京城에잇는 某劇團, 某劇團이라하는 某劇團 은 그싸어도공이 좀거야될것인 데도불구하고 한아도공이 없으 니 寒心하니다。 그날그날에 돈버리로 放浪劇人을 건저드려 演劇 을 商賣마사아오는것을 알때 寒心 千萬。 좀더 良心的態度로 新劇人 외作品을 언제하라고 傳하여주시 요。 (淸州 金)

오케-演奏會에一言

今般 오케-演奏會 南鮮巡廻에 金堤에도 들여엇다。 毋論 當地에 未曾有의것이엇든만큼 一般觀客은 開催日字를 손꼽아 企待리 침 豫告 두달기는날에 이르자 無慮千餘人을 헤아릴만한 觀衆은 開演時間 미리부터 입추의餘地가 없이 꼭들어참으로 定刻時間이 되지안하서 入場을禁하고 始作하 다。 이地境이되니 맨나중에 들려 드는분들 더구나 數-里村에서 到된분들 문을 열어라하는 叫喚實로 苦況한 慘劇이엇다。 남어지 千餘人의떠들은 어찌하겟는가? 밖에서라도 聲樂이나마 들어보겟 다고 劇場벽을 包圍한 패들이 百名이엇다。 한번보기를 所願하 는것을 보지못하고 도라와 모두 들 憐惜하물 마지안는同時에 不 平이 자자하다。 차라리 통니지안 할만 못하지안엇는가! 그리고 巡廻을 끼치는것이니 이제부터는 興行 地方人에게 조치안은 影響을 바랍니다。 (金堤 崔...)

라디오

七月一日 (木)

第二放送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十時卅分 氣象通報 ▼十一時十五分 講演 住宅과衛生 朴吉龍 ▼正午(東)時報 日用品時勢 ▼午後零時五分(東)演藝(東京)前田 界外 ▼零時四十分 뉴-스 ▼四時 뉴-스 ▼六時三十分 童話와唱歌 一、제비 二、기러기 三、시냇물 四、참새야 五、맹꽁 六、소낙비 七、故鄕 八、꽃 九、參 十、獨唱 새의숨

▲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 京城幼稚院兒童 ▼七時 經典解說 三國五戒 金奉 ▼七時三十分 뉴-스 天氣豫報 ▼八時 趣味講演 不老長生이야기 梅田中學 ▼八時三十分 一、國山夜馬 二、긴아리 三、打鈴 四、遷緣歌 五、關城歌 六、방아打鈴 崔貞子 金秋月 ▼九時 歌曲 一、界面頭擧 二、弄 三、編樂 四、編界樂 五、編 朴桃姬 金愛蘭 金相淳 金永根 金一字 ▼九時三十分(東)時報、뉴-스 今月의天氣案內、氣象通報 地方으로보내는뉴-스、豫日順序 ▼十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레코-드音樂-輕音樂及歌謠曲-(京城)

第一放送

▼零時五分(東)本日コンサート ▼六時(國)講演 ▼六時三十分(東) ▼八時(大)物語 ▼八時三十分(大)浴曲 ▼九時(東)長唄

七月二日(金)

第二放送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十時三十分 氣象通報、料理 法、생선어채 ▼十一時十五分 婦人時間 女作과文學 毛允淑 ▼正午(東)時報、日用品時勢 ▼午後零時五分 京畿立唱 一、놀양二、앞산打鈴三、뒷산 打鈴四、개고리打鈴五、도라지 打鈴六、자진방아打鈴 金京李李 泰福命命 蓮鳳吉山 ▼零時四十分 뉴-스 ▼四時 뉴-스 實況 野球試合實況 -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第十一回全國都市對抗野球大會 朝鮮豫選(南大門組) ▼六時(京)英語講座(五의三) P•T•파-킨스

▼六時三十分 兒童と先生の時間 一、金の鉞(讀本卷七第二十三課) 四年生 二、子どもとたんぽぽ(讀本卷三第十二課) 二年生 ▼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最近海外講話 ▼七時三十分 뉴-스、天氣豫報 ▼八時 講演 여름과衛生 辛泰敏 ▼八時三十分 流行歌 一、人間사-커쓰 二、港口의스타일 三、處女讀本 四、나홀로 울때 五、젊은피는故鄕 伴奏 DK管絃團 ▼九時 朝鮮音樂 一、新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덩리 二、俳唱 가、短歌 나、興甫歌 沈相健 ▼九時三十分(東)時報 뉴-스、氣象通報、地方으로부터보내는뉴-스、豫日順序 ▼十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레코-드音樂-輕音樂-(京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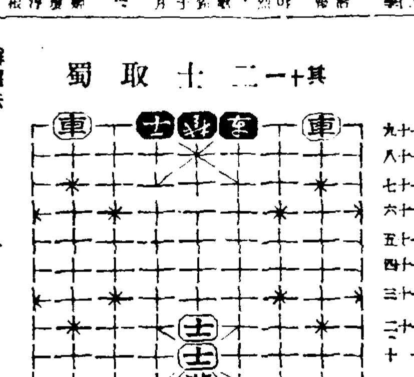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大)講演 ▲六時三十分(東)お話 ▲七時三十分(東)管絃樂 ▲八時二十分(大)漫才 ▲八時四十分(東)筝曲 ▲九時(大)時事解說

博譜 (22)

其十二 士取蜀

漢勝、漢先數



解釋法

第一節 九十二車가七十二로(이때에九十四靑車가八十五로올때에는 第二節을 보시고 九十四靑車가八十五로오지아니할때에는 第五節을 보시고 또는 九十五靑將이八十五로올때에는第九節을보시압)

第二節 九十八車가六十八로 七十二車가九十二로 八十五靑車가 九十四로 六十八車가六十五로 九十六士가八十五로 九十二車가七十二로 以下는 第三節을 보시압

第三節 九十五靑將이九十六으로 二車가七十二로 七十七로 九十四靑車가七十四로 七十二車가 六靑將이八十六으로 六十五車가 六十八車가六十八로 八十六靑將 이七十六으로 九十七車가六十七 로 八十五가九十四로 六十七車 가六十四로 (이때에九十四靑車가 九十五로올때에는 第四節을보시고 九十四十가九十五로올때에는 第 八節을보시압)

第四節 六十四靑車가六十六으로 七十六靑將이七十五로 六十六車가六十 五로 七十五靑將이七十四로 六十 車將이면 이긴(勝)다

第五節 九十八車가六十八로(이때에九 十四靑車가八十五로올때에는 第六 節을보시고 九十六으로 八十五로 올때(來時)에는 第七節을보시압)

第六節 七十二車가九十二로 八十五車 가九十四로 六十八車가 六十五 로 九十五靑車가九十六으로 九十二車 가七十二로 以下는 第三節을보시압

第七節 六十八車가六十五로 以下는 第三節을 보시압

第八節 六十四靑車가七十四로 車將이면 이긴(勝)다

第九節 九十八車가六十八로 八十五靑將이九十五로 ... 이긴(勝)다

藝術의新境地를開拓하라

映畫小說懸賞公募

映畫는 現代的인新藝術로서 자못 長足的인進勢로 獨特한文化를形成하여가는 途程에 잇다。 그大衆파의 接觸面이 넓은만치 이에對한 一般의 關心이 나날이 커감을본다。 그러고 이를適宜히 獎勵함으로써 그敎化的乃至文化的 成果가 적지안흘것을 느끼는바이다。 그러므로 本社에서는 昨年新春에 씨나리오를 懸賞公募하야 斯界의振興에貢獻하는先驅으로 着한일이 잇거니와 이번에 또 다음과같이 一種의 映畫小說을 天下에 公募한다。 이에『一種의 映畫小說』이라 하는것은 從來의 所謂『映畫小說』이 아니오 映畫와 文學과의 有機的綜合이 可能함을 具體的으로 보여주는 새로운形式의 讀物을 意味함이니 이를 紙上에 揭載하면『읽는映畫』가 되고 多少의 씨나리오的 脚色을 더하면 곧 撮影臺本이 될수잇는 것임을 要한다。

規定

一、內容。 全朝鮮 著名한 勝景古蹟을 되도록 많이 畵面에 나타나게하되 이야기의 構成은 興味잇고 無理없이할것 (勝景古蹟에關한 로맨스를 더러 솜씨잇게 끌어너코 또 유모러스한場面을 가끔재미나게 섞어넣어 주엇으면 조켓다)

一、長短。 製作하야 十卷쯤될것으로 紙上揭載에는 一頁一百字原稿紙九頁을 一回分으로하야 三十回以上이됨을 要함

一、賞金。 貳百圓

一、期限。 七月末日

注意

一、應募作에는 반드시 一千字以內의 梗槪를 添付함을 要함

一、當選作의 製作權은 本社의 所有로함

一、落選作은 全部返送함

一、應募作은 本社 學藝部로보내되 外封에 『映畫小說』이라고 朱書함을 要함

東亞日報社

產業

稻熱病의原因과 發生前後의退治法

(一)……柳 春 [illegible]

第一章 머리人말

[illegible]

第二章 稻熱病의發生原因

一、稻熱病의種類

[illegible]

二、溫度와稻熱病

[illegible]

燒酎統制 現狀維持有力

[illegible]

(가) 產業用品 (나) 加工品 (다) 賣買品

二、購買事業 三、利用事業

[illegible]

三井燒酎統制 平壤業者反對

【平壤】 三井物產에서 [illegible]

義城에待雨

【義城】 慶北義城郡은 本來旱 [illegible]

咸陽移秧不能 雨水不足으로

【咸陽】 慶南咸陽에서는 去二十五日頃부터 비가 [illegible]

期末金融平穩

[illegible]

咸南東海에서 鰮五萬桶收獲

【咸興】 [illegible]

咸南ㅅ통조림 年百二十三萬圓

【咸興】 咸南東海岸에서 [illegible]

各地春繭共販

△載寧 載寧産繭은 [illegible]

朝鮮內麥收穫 過半以上完了

六月一日現在、增收豫想은無難할듯 最近三年來의大豐作

今年度의 麥作은 六月末으로서 [illegible] 一千四百五萬四千七百八十一石 即 前年比三百六十五萬石(三割五分)의 增收로서 過去五個年間에 最高記錄인 昭和十年의 一千二百三十一萬石을 [illegible] 未曾有의豐作으로되어잇다

朝鮮信託의 期末信託現況

朝鮮信託會社의 不動產信託은 [illegible]

金錢信託 四三、六三〇千圓

不動產信託 二〇、六七〇千圓

[illegible]

稅務監督局 機構擴充

【東京電話同盟】 大藏省에서는 [illegible]

產業組合中央會 各支部에指令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西北朝鮮旱魃로 大豆被害尤甚

江原道서는再播種?

西北朝鮮地方의 大豆는 旱魃때문에 [illegible]

七月分煙草 製造豫定數量

專賣局七月分 煙草製造豫定數量은 [illegible]

證券金融 七分半据置

朝鮮證券金融會社는 六月三十日 [illegible]

關東州에 三個稅令新設

【新京二十八日發同盟】 關東局은 [illegible]

鑛業開發總會

朝鮮鑛業開發에서는 二十九日 [illegible]

南滿油化工業 創立案通過

資本金五千萬圓

【新京二十八日發同盟】 [illegible]

總收入	三、三〇八、八六一	
總支出	三、三六一、〇七三	
當期益金	四四七、七八七	
前期繰越	二五〇、一	
當期剩金	一九七、七八七	
法定積立	一〇、一	

南海產組業績 逐年大躍進

【南海】 南海產業組合은 昭和七年 [illegible]

江華朝陽紡織 擴充計劃樹立

機械增設、工場增築等

【江華】 產業江華의 [illegible]

染色加工業中心 內外地對立顯著

一元統制期待不可能으로 業界의混亂을豫想

【東京電話同盟】 日本輸出織物 [illegible]

◇……수박入荷……◇

朝鮮內春繭取引時勢

(六月二十九日農林局發表)

月日	場所	最高	最低	平均	掛目	數量
六、二四	谷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二五	金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信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江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黃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寧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江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鐵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春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文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信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二六	金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鑛業◎權◎動◎靜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鑛業權者住所氏名

[illegible]

鑛業權消滅

[illegible]

共同鑛業權者脫退

[illegible]

共同鑛業代表者改定

[illegible]

登錄名義人表示變更

[illegible]

鑛業權表示變更

[illegible]

鑛業權變更

[illegible]

鑛業權公賣

公賣財產及滯納者 [illegible]

昭和十二年六月二十三日 天安稅務署長 橋本 [illegible]

鑛業權移轉

[illegible]